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관한 FAQ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증명서발급시스템' 은 지난 2006년 9월 16일 오픈한 이래 회원사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 발급 대비 인터넷 발급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 발급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임에 따라 본지는 인터넷증명서발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회원사들이 많이 했던 질문과 상담내용 및 조치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no	문의내용	조치방법
1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 했을때, **창이 닫힌 후 아무런 반응이 없음**	● 팝업차단 기능을 해제 ● 윈도우 자체 팝업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네이버, 야후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팝업차단 기능도 해제
2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 했을때, **새창이 뜨면서 "인증서 개인정보 오류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 인증서의 사업자번호와 협회 전산시스템 사업자번호가 서로 틀림 ☞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연락**
3	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 했을때, **새창이 뜨면서 "신원확인용 인증서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 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 신원확인용 기능이 제외되어 발급된 인증서임 ● 해당 인증서 발급기관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원확인용으로 갱신 받아야 함
4	인증서 로그인시 "하드디스크로부터 인증경로를 읽는데 실패 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임 ● 제어판/프로그램추가제거에서 "TrustWeb"을 제거한 후, 다시 한번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
5	증명서 출력 시 "복사방지마크 파일 생성을 실패 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 프린터의 이름과 모델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임 ● 제어판/프린터및팩스를 열어 해당프린터의 "속성"에서 프린터의 모델명과 이름을 동일하게 수정함
6	증명서 출력시 "Load Library fail : CPGen.dll" 이라는 메시가 나타남	●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임 ● 증명서발급 홈페이지 공지사항(글번호 4번)에 등록된 파일(dll파일)을 다운받아 C:\WINDOWS\system32폴더에 재설치 함

no	문의내용	조치방법
7	증명서 출력시 "가상프린터 드라이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프린터가 본체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	●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임 ● 홈페이지 발급지원프린터목록에 있는지 확인 → 해당 프린터가 "발급불가프린터"목록에 해당되면 발급이 절대 불가하며, 최신의 프린터 이면서 "발급가능프린터"목록에 없으면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연락** ● 프린터 상태 확인 –"테스트페이지인쇄"기능 확인 – 프린터에 다른 작업이 진행 중 인지 확인 – 프린터의 토너상태 정상인지 확인 – 프린터 드라이버를 최신 드라이버로 교체 → 해당 프린터모델과 일치하는 드라이버를 설치
8	증명서 출력시 "가상프린터 드라이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남 (공유프린터)	● IP가 있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출력이 가능함 ● 공유 프린터는 출력이 불가하므로 프린터를 본체에 직접 연결하여 출력 함
9	프린터오류(잉크부족 등)로 인하여 출력을 실패하고 발급내역/출력증명서 메뉴로 전환 되어 "열람"상태일 경우	●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연락** ● 재발행 처리함 (동 증상 외의 경우는 재발행이 불가함)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

미국 루이빌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클리포드 컨(Clifford Kuhn)박사는 '웃음박사'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말하는 웃음이란 이른바 얼굴 근육 스트레칭이다. 우선, 눈썹을 이마주름이 깊숙이 생길 정도로 최대한 위로 치켜올린 채 열까지 센다. 한 번에 2분씩 틈날 때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다.

컨 박사에 따르면 5살짜리 어린이는 하루평균 250번 웃는다고 한다(어떤 학자들은 400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많이 웃지만, 나이가 들수록 웃음은 점점 줄어든다. 어른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는 게 고작이다. 웃을 때마다 뇌 속에서 엔도르핀(endorphin)과 같은 몸에 이로운 물질의 분비가 크게 늘어난다. 침에서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 S-IgA가 분비된다. 반면,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호르몬은 줄어든다.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억지웃음도 실제 웃음과 똑같이 이로운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분간하지 못하고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히죽히죽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컨 박사는 100번 웃으면 15분간 페달 밟기 운동을 하거나, 10분간 보트 젓기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농담을 듣고 웃는 웃음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다른 사람과 인사하거나 얘기하며 웃는 웃음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中에서